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195호 - 창립 2020.6.28



길목교회
THE WAY NEWS

주후 2024.4.7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사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교육전도사 : 전정민

사역자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예배



고백과 침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성시 교독 <시편63편>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이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성도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인도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도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인도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성도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인도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인도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성도들)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인도자)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성도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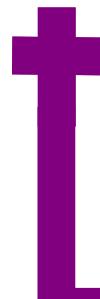
(성도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침회 기도 <나,이웃,교회,나라,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받았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말씀 교독과 듣기 <민수기 25:1-18> 다같이

말씀 묵상 및 나눔 다같이

말씀 권면 이길주 목사

묵상 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사랑의나 늘있 는곳에 하나님께 서 계시도 - 다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감사 찬양 <주의 은혜라> 다같이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감사노트



성경말씀 메시지

1-3 이스라엘이 싯딤(아카시아 숲)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는 동안,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모압 여자들이 음란한 종교 의식에 남자들을 초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이스라엘은 결국 브울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발하셨다.

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목매달아 처형하고, 그들의 주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버려두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5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지시했다. “여러분 관할 아래 있는 남자들 가운데 바알브을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찾아 처형하십시오.”

6-9 모든 사람이 회막 입구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자기 행동을 과시하듯 당당하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가족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의 하는 짓을 보고, 창을 쥐고 그들을 뒤쫓아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창 하나로 두 사람을 꿰뚫었는데, 창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단번에 관통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운데 퍼지던 전염병이 그쳤다. 그러나 이미 24,000명이 죽은 뒀였다.

10-13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해 나만큼 열심을 다했으므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일러 주어라. 내가 그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했기 때문이다.”

14-15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다. 살루는 시므온 지파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르의 딸 고스비였다. 수르는 미디안 족속 한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 (1)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3)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5)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7)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2)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14)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15)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18)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브울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브울의 일로 염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말씀묵상



주의 은혜라

감사찬양

생 살아 온길
인 생길 오지 주의 은

주의 은혜라 내평 생 살아온 길
려 같길 모두 마친후

주경민
생 살아 온길
인 생길 오지 주의 은

주의 은혜라 내평 생 살아온 길
려 같길 모두 마친후

주 - 의 사 랑 어 써 이 루 말 - 하 라
주 - 의 손 - 이 항상 살 페 주 - 시 고 모든

주 - 안에 - 서 형 - 통 하게 하 - 시 네
주 - 은혜라 내평 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주 - 의 사 랑 이 없 는 사 랑 다 함 이 없 는 사 랑 주의 랑
주 - 열굴 를 때 부 같길 모두 마친 후 주 열굴 를 때 나 - 는

A/C#³ G D/F# A 3 D
F#m 3 Bm7 G E/G#³ A
G 3 D/F# Bm7³ G/A A 3 D C/D D F#
D/F# Gm7 Gm7 D/F# GM7 F#m/A#
F#m 3 A F#m G A 3 D/F# GM7 F#m/A#
F#m 3 A F#m G A 3 D/F# GM7 F#m/A#
A F#m G A 3 D/F# GM7 F#m/A#
F#m 3 A F#m G A 3 D/F# GM7 F#m/A#
A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30~3:00
사모공동체 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청년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30~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현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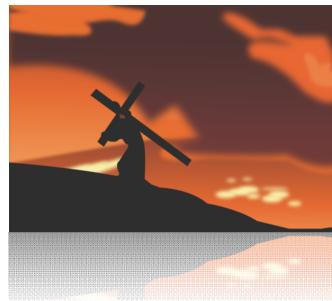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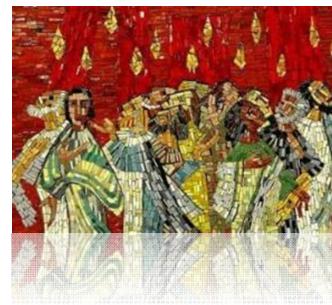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메모





공동체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찬양 변경

이번주일부터 감사찬양곡이 변경되었습니다. 곡 제목 - '주의 은혜라'

국회의원 선거 투표

이번주 수요일 4월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성지순례 사역

담임목사님이 이번주부터 성지순례 사역을 다녀옵니다. 건강과 사역의 은혜를 위해서 중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 4.10(수)-26(토) / 사역지: 튀르키예

이번달 예배 안내

4.14 권면: 전정민 전도사 (찬양인도: 이건명집사)

4.21 나눔예배 (예배인도: 이건명 집사)

점심식사 섬김

4.28 - 장천, 장현주 집사 / 5.26 - 김점순 집사

6월 - 권종신, 이길주 목사 / 7월 - 박사무엘, 전정민 전도사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실 때 함께 나누어주세요 ^^

길목교회 사역

매주 화요일 기도모임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목요일 성경공부모임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목요일 특별모임 (오후10:00-오후11:00, 온라인)

매주 금요일 사모모임 (오후1:00-오후4:00, 길목교회)

- 참여문의: 이메일 iam@theway.news